

오랜 기다림의 끝, '필승 카드' 이의리, 복귀 카운트다운



KIA 선발 이의리가 지난해 6월 부상 이후 1년여 재합을 마치고 1군 복귀 카운트다운에 본격 돌입했다. 이의리는 9일 퓨처스 리그 NC와의 경기에서 후반기 복귀 여부를 점검하는 마지막 실전 투구를 펼친다.

〈KIA 타이거즈 제공〉

컴백 최종 리허설...오늘 퓨처스리그 NC전 등판

선발진 재편, 탄력적인 마운드 운용 중심축 역할 기대 선두권 경쟁 KIA, 후반기 치열한 순위 경쟁 '핵심 퍼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영건' 이의리가 1군 복귀를 향한 사실상 마지막 실

전 점점에 나선다.

9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리는 NC와의 2군 경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재합 투구의 연장선이자, 후반기 복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중요한 무대다. 이번 등판을 무리없이 소화한다면, 그는 후반기 마운드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마지막 조각이 될 전망이다.

이번호 감독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의리가 9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라며 "당일 75구 정도를 던지고, 이후 불펜 피칭으로 15구 정도 추가로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 문제 없이 마쳤다는 보고가 오면 후반기부터 1군에 합류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복귀 시점은 후반기 첫 상대인 NC와의 4연전(17~20일·광주) 중 한 경기가 유력하다.

이 감독은 "등판 후 6~7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로테이션 순번만 조율하면 된다"며 "9일 등판 후 컨디션을 체크하고 나서 복귀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등판은 지난해 2월 두산과의 복귀전, 27일 SSG전 이후 세 번째 실전이다.

당시 두산전에서 이의리는 20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비자책)을 기록하며 견재를 알렸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까지 찍혔고, 30구 동안 안정적인 제구도 돋보였다. 이어 SSG를 상대로는 3.1이닝 동안 2피안타 3사사구 3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 투구수를 59개로 늘리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두 차례 실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위를 회복해온 만큼, 이번 9일 NC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1군 풀업은 시간문제다.

이의리의 가세는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 운용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KIA는 현재 외국인 '원투펀치' 네일과 윌러를 중심으로, 김도현 양현종(좌완) 윤영철(좌완)이 선발 로테이션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이의리가 오면 좌완 트리오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상대 타선에 따른 선발 매치업 전략에도 폭이 넓어진다.

또한, 5인 선발 체제에 여유를 주는 5+1 운용도 가능해지고, 여유 자원을 불펜으로 돌려 마운드 전체의 유동성과 안정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KIA는 전반기에 필승조의

소모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의리의 복귀는 불펜 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후반기 대장정을 앞두고 핵심 전력 한 명이 복귀한다는 점에서 팀 전체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독 역시 "후반기 초반의 흐름이 중요하다"며, 가용 자원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의리는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이후 약 1년여 간 재활에 매진했고, 올 시즌 전반기 복귀가 기대됐지만 5월 검진에서 염증 소견이 발견되며 복귀 시점이 다소 늦춰졌다.

그러나 이제야 1군 복귀를 눈앞에 둔 만큼 몸상태를 회복했다.

예년의 투구를 되찾는다면, 마운드 강화를 넘어 KIA의 후반기 순위 경쟁의 한 축을 차지할 가능성도 크다.

2021년 KIA에 입단한 이의리는 통산 80경기에서 26승 22패 평균자책점 3.89를 기록 중이다. 2022~2023시즌에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쌓으며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다가오는 후반기는 이의리에게 있어 '완전한 복귀'를 넘어,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다.

긴 기다림 끝에 돌아온 '젊은 에이스'를 향한 팬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시청 이재성, 남자 200m 대회新 우승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 이민정 여자 200m 3위 광주체고 윤준호·광주체중 강요한 대회新 '금빛 도약'

광주시청 이재성이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이재성은 8일 익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200m 결승에서 20초78을 기록, 신민규(서울시청·20초91), 박민수(서울시청·21초00)를 제치고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 도교세계선수권을 준비하는 고승환은 이번 대회에 나서지 않았다.

광주시청 이민정은 여자일반부 200m에서 3위에 올랐다. 이민정은 24초 62를 기록, 신현진(포항시청 24초43)과 전하영(가평군청 24초53)에 이어 세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열린 여자일반부 100m에선 이은빈(해남군청)이 11초80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회신기록(종전 11초87)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3000m 장애물에서는 남보하나(진도군청)가 10분58초56으로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기록했다.

광주체고와 광주체중의 선전도 돋보였다.

광주체고 윤준호(3년)와 광주체중 강요한(3년)이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빛 도약'을

선보였다.

윤준호는 지난 7일 열린 남자고등부 높이뛰기 결승에서 2m05의 기록으로 전지민(충남체고·1m95)과 최은우(충남체고·1m90)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윤준호의 2m05 기록은 남고부 대회 신기록이다. 최은우가 앞서 1m85를 기록해 지난해 자신이 세운 1m90을 경신했고, 윤준호가 곧바로 최은우의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체중 강요한은 지난 6일 열린 남자중등부 멀리뛰기에서 6m49를 기록, 심우준(서귀중·6m29)과 김재현(당하중·6m16)을 제치고 우승했다.

강요한의 6m49도 대회신기록이다. 이날 4위를 차지한 김민재(전남체중)가 6m16을 뛰어 지난해 이동관(전라중)이 세운 기존 기록 6m04를 경신했고, 김재현과 심우준이 김민재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 치웠다. 이어 강요한이 1차 시기에 6m49를 뛰어 다시 한 번 대회신기록이 경신했다.

광주체중 신윤아·안예지·김지은·손예원은 여자중등부 4×800m계주에서 10분18초로 값진



광주시청 이재성과 이민정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금메달을 합작했다.

여자중등부 100m허들에 출전한 광주체중 김아인(2년)은 15초1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아인은 류지우(2년)·이세령(1년)·윤가은(3년)과 팀을 이뤄 출전한 4×100m계주에서도 50초66의 기록으로 세종중(50초58·대회신기록)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밖에 광주체중 박윤지는 여중부 원반던지기에서 19m97를 던져 동메달, 광주체고 장성연(2년)은 여고부 해머던지기에서 45m11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박희중 기자

'역대급 폭염'클리닝타임 최대 10분으로 연장

KBO, 폭염 대응책 발표

KBO는 전국적인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경기장을 찾는 관객,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염 대비책을 8일 발표했다.

이날 경기부터 각 구장에서는 폭염 정도에 따라 경기운영위원회와 심판진이 협의해 현재 4분인 클리닝타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조정했다. 또한, 각 구단에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 선수단 구역에 충분한 냉방기와 음료 배치를 요청했다.

관객의 안전을 위해 전광판에 폭염 대처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 지원 및 안내요원의 증원과 충분한 대처 물품 준비도 요청했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 14일까지 편성된 일요일 경기 개시 시간은 기존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됐으며, 이 기간 더블헤더(서스펜디드 경기 포함)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오는 18일부터 재개되는 퓨처스리그 경기에서는 무제한이었던 연장전 승부차기를 최대 11회까지 제한한다.

/주홍철 기자



지난 3월에 열린 광주시체육회 우수선수 발대식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체전 체제 본격 가동

부산 전국체전 D-100...종목별 예선·하계강화훈련 지원 경기력 극대화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10월17일부터 부산 일원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100일 앞두고 종목별 예선대회 개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 및 전력 분석 등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시체육회는 8월까지 사격, 펜싱, 궁도, 태권도 등 종목별 예선대회를 개최해 대표선수 선발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부산 전국체전에는 총 50개 종목이 열리는데 광주는 50개 전 종목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이어질 하계 강화훈련 계획도 수립 중이다.

훈련 기간에 대표선수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를 대표해 폭염 속에서도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소화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청 김영하, 개인·단체전 2관왕

실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전남도청 김영하가 제12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전남도청팀 입단 1년 차인 김영하는 지난 7일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근대4종 개인전에서 펜싱(22점)에서는 9위에 그쳤지만 레이저런(641점)과 수영(303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1천164점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영하는 박상구·이동기와 호흡을 맞춘 남

자일반부 근대4종 단체전에서 총 3천405점(수영 800점 2위·펜싱 680점 1위·레이저런 1855점 1위)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김영하는 박상구와 팀을 이룬 남자일반부 근대5종 릴레이에서도 총 1천371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청은 여자일반부 근대4종에서도 김보경·공화영·주유정이 출전해 총 2천800점(수영 773점 1위·펜싱 600점 1위·레이저런 1487점 1위)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희중 기자



김영하가 지난 7일 열린 '제12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 남자일반부 4종 개인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